

철학사상 1

윤리적 삶과 자유의 문제

1991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1

편집인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차인석

편집위원

김남두 김여수 김영정 백종현 송영배 심재룡 오생근 이명현
장회익 차인석 한상진

편집자문위원

김충열 박동환 변규룡 송상용 신귀현 신오현 신옥희 안진오
이삼열 이영호 이초식

철학사상 : 윤리적 삶과 자유의 문제

엮은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 차인석

펴낸이 이종국

펴낸곳 도서출판天池

등록번호 · 2-400(1987. 12. 12)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31-13

전화 312-4133

초판인쇄 1991년 11월 25일

초판발행 1991년 11월 30일

값 4,800원

철학사상 1
윤리적 삶과 자유의 문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天池

창간에 부쳐서

차 인 석(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우리 연구소가 출범한 지 이제 두 해를 넘겼다. 대학 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학술 집단이 적지 않은 사업을 해온 것은 펍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짧은 기간이나마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연구 업적들을 모아서 이 학술지를 처음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됨은 무엇보다도 감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서철학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오늘의 문명이 야기하는 문제들의 성격을 파헤치고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본다는 목적을 내걸고 이 연구소는 창립되었다. 그리고 이 목적은 학자들 사이에 넓은 공감대를 갖게 되었고, 이에 이 연구소는 활기찬 걸음을 걸어 올 수 있게 되었다.

철학함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 삶과의 직접적 관련에서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근래에 와서 강력히 논해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소가 마련된 셈이며, 건설한 이론 작업에 바탕을 둔 실천적 활동이 철학함의 가장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이 창간호의 특집 “윤리적 삶과 자유의 문제”는 현대에서 철학함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잘 증시할 것이다. 과학적 방법만이 우리의 사고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과학주의가 자리를 굳혀 가려는 가운데 가치 판단의 타당성이 약해져 가기도 하지만, 인간이 왜 자유로워야 하고

존엄스러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그치지 않고 나온다. 이에 대한 고려는 어제나 지금이나 그 밀도와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래서 동서의 전통 사상이 우리의 삶에서 갖는 의의를 다시 찾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난 해 여름에 열렸던 국제학술회의 “새로운 문명에 대한 철학적 조명”은 우리에게 커다란 성과를 안겨주었다.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대응, 산업화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반성케 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모색케 한다. 이 대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알차게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번 호에 이들 가운데서 몇 개를 싣도록 했다.

철학이란 인간의 그를 둘러싼 세계, 자연과 사회에 대한 사유의 한 양식이다.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무엇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와 사회가 무엇이며, 자연은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사유가 철학함이다. 여기에 내놓은 논문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클 것이다.

이번에 창간호가 이처럼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초대 소장 한전숙 교수의 탁월한 창의력과 지도력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전임 소장 소광희 교수를 비롯한 동료 교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의욕과 집념, 그리고 편견없는 협력에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학술행사 때마다 본지의 창간 기획을 맡아주신 백종현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저없이 헌신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철학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1991년 10월 31일